

제거된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 2:20).

: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에서 난다”는 뜻은 전에 붙잡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듭남의 처음 단계는 모든 위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나 정직, 노력이 아니라 참으로 지독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려는 것은 바로 그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과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제거해야 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나 자신에 대한 주장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 예수님이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아주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육체의 징그러운 죄악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과 공포와 처절한 비참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 그 위기를 뚫고 지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당신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거된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 2:20)

1. 진정한 거듭남

오늘 말씀은 1월 15일에 나누었던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라는 묵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물음은 챔버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뺏뺏하게 살아 있었던 ‘자만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에 대한 챔버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말한다면,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위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야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정직 노력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지독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완전한 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던 위선이 제거됩니다.

2. 거듭난 후에는

오늘 묵상은 정확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전반부에서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거듭남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제거해야 할 것을 보여주실 때, 거듭난 우리들은 자신에 대한 ‘주장과 권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포기는 참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자신을 내어 놓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면, 모두가 이 과정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육체의 징그러운 죄악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죄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여 행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무척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챔버스는 ‘부끄러움’ ‘공포’

‘처절한 비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군복으로 사역하시던 때, 새롭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취미로 바둑과 낚시를 즐겼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인들에게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꺾고 바둑판을 쪼개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교만과 게으름은 그렇게 크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제거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옛 자아가 제거되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완전하게 주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교만하게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당한 자들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정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 ❷ 거듭난 자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핵심 단어는 ‘포기’와 ‘양도’입니다.

묵상 질문 주님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꺾으시겠습니까?

묵상레시피 | 로마서 6:1-23 + 갈라디아서 2:20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5절)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6-7,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8-10, 13-14절)

죽으심과 생명에 연합하여 나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6, 17-18절)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19-21절)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9, 22-23절)

우리에게는 여전히 본능과 욕구가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그것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4절)

본문의 ‘세례’는 침수를 배경으로 한다. 물에 들어가 푹 잠긴 상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상태로, 물에서 나올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연상하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4절)

‘행하다’는 말은 ‘걷는다.’는 의미이다. 당시 사람들은 삶을 ‘길’, ‘여정’으로 생각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삶의 여정, 삶의 기준으로 ‘새 생명’을 밀한다. ‘새 생명’의 방점은 ‘새로움’에 있다. 세례 이전과 이후의 삶,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지속적인 생명의 갱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리고 향유할 참된 삶의 혜택이다.

몸의 사욕(12절) 성욕, 식욕 등의 신체적 본능의 욕구 및 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제반 욕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생기는 무절제, 탐욕, 집착 등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죄의 삶, 하나님의 은사(23절)

죄는 군인에게 규정에 따라 급여를 주듯 율법의 규정에 따라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죄의 마땅한 대가는 사망이므로, 급여를 빌미로 고용한 사람을 조정하려는 악덕 고용주처럼 죽음을 내세워 왕 노릇 하려 한다. 은사(헬, 카리스마)는 다양한 지체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 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허락된 구원의 선물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짧은 기도

제가 제 자신을 경건하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제 삶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주 하나님, … 제가 이제 거룩하고 당신의 종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영원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_오직 주의 은혜로 중에서 (1483–1546, 종교개혁자)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57